

전남 7개 시군에 전국 최대 스마트팜 조성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1451억원 투입… 전국 32%

ICT 환경제어 기술 접목 신규임대형 단지 등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첨단 기술 기반 스마트농업 전환을 선도하며 지역 농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한 자원 부족

과 식량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은 고령화와 인력난, 기후 리스크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남지역본부는 고품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1451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며, 전국 스마트팜 보급 면적의 약 32%를 차지해 한국농어촌공사 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나주 첨단 무인자동화 시범단지(54.3ha) 구축 완료,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4ha) 올해 9월 준공, 고흥·신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107억원·16.6ha), 고흥 스마트축산 ICT(125억원·19.1ha), 장성 스마트농업 육성단지(391억원·12.9ha), 신안·영암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448억원·15.4ha), 강진·영암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18억원·0.7ha)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전남지역본부는 청년과 신규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ICT 환경제어 기술을 접목

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과 탄소중립형 디지털 농업 기반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지역으로,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과 상생 모델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농업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사랑의1004운동’ 기탁식

5000만원 상당 광주쌀·쌀가공식품 어려운 이웃에 전달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에서 사랑의 1004운동 기탁식을 열고 광주쌀과 쌀가공식품으로 구성된 꾸러미 1004세트(5020만원 상당)를 광주 5개 구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농심천심 운동의 실천을 위해 광주 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전달된 꾸러미는 광주구에 404세트, 동·서·남·북구에 각각 150세트씩 배분됐다.

김명열 사랑의1004운동 운영위원장

(서창농협 조합장)은 “사랑의1004운동은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광주쌀과 가공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대표적인 농심천심 실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1004운동은 2011년부터 이어져 온 농협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으로 취약계층에 현물·현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에서 사랑의1004운동 기탁식을 열고 광주쌀과 쌀가공식품으로 구성된 꾸러미 1004세트(5020만원 상당)를 광주 5개 구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전남쌀 소비촉진운동

한농연 전남연합회와 목포 평화광장서 가래떡 나눔

농협 전남본부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는 17일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래떡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추진 중인 ‘농심천심 운동’의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홍영신 한농연 전남연합회 회장과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며 밥맛 좋은 우리쌀의 우

수성을 홍보했다.

홍영신 회장은 “쌀 소비 촉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행사가 농업인의 마음과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더 깊이 알릴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10월 상생페이백 3373억…1인당 평균 6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점수를 시작해 두 달간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이달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 43.4% 수준인 562만명

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다.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 신청해 1차 지급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을 포함하면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총 527만명에게 3057억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와 함께 9·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220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급액(6430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광주전남노란우산 고객권익위 ‘11인→15인’ 확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위촉식… 현장중심 권익보호 강화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11인에서 15인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 분야별 전문가와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등 15인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승재 해나하우스 대표와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촉식을 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가입체널 다양화,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월 부담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노랑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사업이다.

2007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 기준 재적 가입자 184만명, 부금 31조원을 달성했으며 광주는 4만8000명, 전남은 5만6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이용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를 확대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 받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3분기만 3600명 타지로…20대 인구 유출 심화

학업·취업 등 수도권 이동

20대를 중심으로 지난 3분기 호남지역 순유출 인구가 3600여명에 달했다. 17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3분기 순유출 인구는 3632명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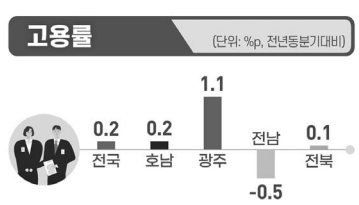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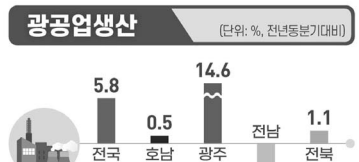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광주 1657명, 전남 1499명, 전북 476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610명으로 가장 많이 떠났고, 10대 700명, 30대 509명, 70세 이상 244명이 감소했다. 반면 40대 167명, 50대 500명, 60대 725명이 각각 증가했다.

이는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이동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호남권 고용률은 64.3%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1.1%p, 전북은 0.1%p 올랐지만 전남은 0.5%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1.9%p 하락했으나, 30대(1.4%p), 40대(1.1%p), 60세 이상(0.5%p) 등에서 상승했다.

광공업·서비스업·건설 생산지수는 지역별로 회복이 엇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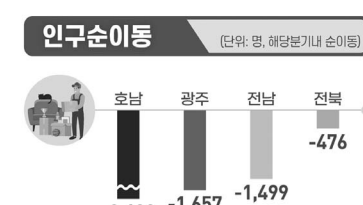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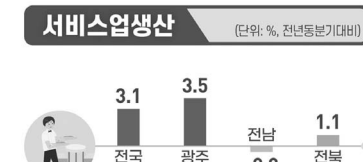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129.6%로 전기장비, 자동차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6.1로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 등에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건설수주액은 토목공사 수주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3625억원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102.6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108.4로 도소매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부동산, 숙박·음식점 등에서 줄었다.

건설수주액은 3952억원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수주가 모두 줄어 전년 동기 대비 25.9% 줄었다.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101.7로 기타 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11.8이다.

건설수주액은 건축공사 수주가 줄어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한 4208억원이었다.

송대용 기자 sty1235@

장성 향동농협 호박벌 사업

‘1농협 1대표사업’ 현장점검

농협 전남본부가 ‘1농협 1대표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장성 향동농협의 호박벌 생산 사업장을 방문해 ‘1농협 1대표사업’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살폈다.

향동농협은 전국 농축협 최초로 화분매개곤충인 호박벌 생산 및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동농협의 호박벌 사업은 기후 변화와 꿀벌 집단 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안정적인 화분매개곤충을 공급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설재배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호박벌은 꿀벌보다 저온과 약천 후에 강하고 활동성이 높아 수정 능력이 우수하며, 농업인이 직접 하던 인공수정 노동력을 크게 줄여 농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일 본부장은 “향동농협의 호박벌 사업은 ‘1농협 1대표사업’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전남지도위, 대안분쟁해결 성과

한전·보해·구례군 등 8곳과 협약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 집단적·개별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도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도입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조정·화해·중재 등 노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전적이면서 예방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다.

법원 재판에 앞서 조정·중재·화해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노사 간 분쟁이나 고충, 갈등의 성격에 따라 △공정노사 솔루션 △직장인 고충 솔루션 △복수노조 솔루션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노동위원회는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직무 부여 등 근로자의 개인적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 노조 설립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조 간 갈등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지도위는 한국전력공사, 보해양조(주), 구례군 등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등 8곳과 협약을 체결, 집단적·개별적 분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지도위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지역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장과 분쟁 예방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힘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